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정춘)는 지난 11월 14일 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한국출판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출판전공 대학원 우수논문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윤세민 경인여자대학 교수의 사회로 '출판학 교육에 대한 고찰'(김포대 김경일 교수), '출판전공 설치를 위한 커리큘럼(안)에 관한 고찰'(협성대 노병성 교수)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선완규(SBI 편집자문과 정 책임교수), 신종락(성균대 강사), 장기용(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씨가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5개 대학 우수논문 발표에는 김기태 세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유창준(본지 편집국장·성균관대), 유순기(건국대), 홍순운(경희대), 김태경(동국대), 박춘옥(중앙대)씨가 각각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김경일 교수의 '출판학 교육에 대한 고찰'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 주>

## “출판의 미래” 교육활성화에 달렸다

한국출판학회  
추계 학술대회

1부 : 한국 출판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부 : 출판 전공 대학원 우수논문 발표회

일시 : 2008년 11월 14일(금) 오후 1시    장소 : 출판문화회관 강당    주최 :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





김경일 교수

### 출판학 교육의 현황

1982년 충청남도 홍성 소재의 해전대학(당시 해전전문대학)에 출판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학과인 출판과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1989년에 신구대학과 해천대학(당시 대전전문대학)에 출판과가, 부산정보대학(당시 부산전문대)에 인쇄출판과가 설치된 이래, 1990년대에는 대구과학대학(당시 대구전문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10개 2~3년제 대학에 출판과(혹은 관련 학과)가 설치되었다. 이들은 총 14개 대학이었으나, 오늘날 서일대학이 미디어출판과, 계원디자인예술대학이 출판디자인전공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음으로써 출판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출판'이라는 명칭 대신 '미디어'나 '편집'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유사 명칭으로 개명하였다. 4년제 대학에는 1989년에 광주대학교(당시 광주경상대학)에 광고출판학과가 설치되었으나 오늘날 광고이벤트학과로 개명되었다.

대학원 과정에는 중앙대학교(1981), 동국대학교(1988), 경희대학교(1989), 서강대학교(1992), 연세대학교(1992), 한양대학교(1995), 건국대학교(1997), 성균관대학교(1998)에 신문방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등의 특수대학원에 출판 관련 전공을 개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의 출판 관련 전공은 폐지되었으며, 대부분의 대학원은 신문출판전공 같은 명칭으로 통합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몇몇 특수대학원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이나 2~3년제 대학들에서 출판(학)과라는 명칭이 사실상 사라진 점은 인력의 수급을 필요로 하는 출판산업계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학들의 입장은 출판산업계의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학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다. 4년제 대학은 취학률이 2000년도에 30.1%였던 것이 2006년에는 44.2%로 증가일로에 있지만 2~3년제 전문대학은 2002년도에 21.2%였던 것이 2006년에 이르러서는 19.7%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백분율뿐만 아니라 실제 인원수에 있어서도 그 감소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2년도에 67만 1298명이었던 취학인원이 2006년에는 49만 3154명으로 2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취학적령인구의 감소이다. 2000년도에 327만 4558명이었던 취학 적령인구는 2006년도에는 249만 9568명으로 250만 명에도 이르지 못한다. 2~3년제 대학은 취학 적령인구의 감소와 4년제 대학의 취학인원 증가라는 이중의 요인으로 인해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더군다나 학생의 충원을 역시 2002년에 92.1%였던 것이 2006년에는 88.6%로 감소하게 된다. 같은 기간에 4년제 대학의 충원율은 95.7%에서 97.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되자 출판(관련)학과가 주로 설치되어 있던 2~3년제 전문대학의 당국자들은 대학의 생존을 위하여 소위 비인기학과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도했는데, 그 방법은 계열화를 통한 학과의 통폐합이나 인기가 있을 만한 명칭으로의 변경, 혹은 인기 학과에 인원 몰아주기 등이었다. 대학들은 입학 경쟁률이 높지 않은 학과를 비인기 학과로 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출판(관련)학과들은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출판학과들은 타 학과와 통폐합되거나 명칭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대학과 같은 공교육기관이 아닌 사설교육기관의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출판 관련 사설 교육기관은 주로 1980년대 후반에 설립되어 출판산업계에 많은 인원을 배출하였는데, 오늘날 그 교육기관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의 <출판언론 아카데미>, <SBI> 등이 있으며, 전자출판 종사자들을 위해 한국전자출판협회(K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출판 아카데미> 등이 있는 정도이다. 사설 교육기관은 출판학을 학문으로서 가르치기 보다는 오히려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출판 관련 정책과 산업 현황

2007년 4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강국의 성장동력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07~11)>을 발표하였다. 이 진흥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 5대 출판지식 강국으로의 도약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핵심이

되는 <10대 과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출판지식 국가 경쟁력의 체계적 관리, ②출판지식 생산력 강화, ③출판지식 유통구조 혁신, ④디지털출판 활성화 기반 구축, ⑤국민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환경 조성, ⑥출판지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⑦출판지식 전문인력 양성, ⑧출판문화 균형발전, ⑨출판지식산업 진흥기구 설립, ⑩출판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이 <10대 과제> 중 출판학과 설립의 이유는 '출판지식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과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으로 출판지식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출판연구소 확대), 출판지식 대학원대학 설립검토 추진, 출판지식 산업 부문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재개발 보급,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판지식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과제는 한낱 허무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에 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며 콘텐츠들은 어떻게 생산해낼 것인가. 그나마 출판 전문 인력을 양성해 오던 대학원들조차도 명칭을 변경하거나 심지어는 출판전공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구호는 허공에 외치는 구호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과거 출판학과가 존재했을 때의 교수들은 점차 노쇠화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은 취업의 가망성이 희박해 보이는 이 전공을 택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신진 학자들의 진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즉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학자의 부족 현상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출판지식 국가경쟁력의 체계적 관리라는 첫 번째 과제나 출판지식 생산력 강화라는 두 번째 과제의 시행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도대체 누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 인력이며, 이 전문 인력은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사 전공자가 출판 정책을 입안했을 때는 그 비전문성으로 인해 많은 착오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위 '한 건' 하는 식으로 정책을 입안할 것이 아니라 전공자들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고, 충분한 자문을

바탕으로 입안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공자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의 학과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 출판학 교육의 필요성

출판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요성이 인식될 때 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의 중요성이나 출판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중요한 측면 중 세 가지를 간추려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가치의 전달과 보존>

인간의 가치는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출판이 갖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고 보존한다는 점이다. 책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저술자의 가치, 즉 사상과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두 개체 혹은 집단이 문화적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하도록 돕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저술자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저술을 시도하며, 독자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책을 읽고 해석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가치의 전달과 수용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책을 통해서 보존된다. 차배근이 지적한 대로 책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지속성은 책과는 다른 대부분의 대중매체가 안고 있는 단점인 일회성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대중매체는 이용에 중점을 두지만 책은 이용과 보존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출판을 통해서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추구해 온 가치를 전달하고 보존해 왔다. 인간이 어떠한 가치를 바탕으로 생존해 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출판과 그것을 학문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출판학의 교육은 그러므로 그 필요성이 확인되는 것이다.



### 〈문화의 진전을 위한 원형 콘텐츠의 개발〉

출판이 문화의 콘텐츠를 복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그러나 출판 활동은 다양한 문화의 콘텐츠를 체계화된 형태로 정리하고 마무리하여 전달하고 보존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출판의 콘텐츠는 여타의 콘텐츠를 위한 원형(prototype)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의 매체 환경에서 이 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위 OSMU가 이를 말해 준다. 즉,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문화 산업의 흥행 성공을 위한 핵심은 원형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가지 매체와 콘텐츠의 유형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원형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큰 매체는 책이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출판의 행위가 선택-제작-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콘텐츠의 발굴이 곧 선택 행위라면 출판학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수만 대를 만들어 파는 것보다 영화 한 편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새로운 교훈이 아니다.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상호 배타적인 관계성을 형성하는 산업은 없으며,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영화의 원형 콘텐츠인 책의 개발을 위한 출판학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 〈제작 기술의 변화와 산업의 범위 확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문화산업 분야 중 출판 분야의 종사자는 20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서, 이는 문화산업 전체의 절반가량 되는 수치이다. 출판 산업이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은 이 산업이 지식정보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제작 과정이 강도 높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일정 정도의 노동 집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그만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제작의 과정 중 일부가 디지털화 되면서 노동 구조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출판의 전 과정중 편집을 위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운영 같은 특별한 기술은 여전히 필요한 기술이며, 현재의 종사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군다나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상상을 추월하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자출판의 경우 단순히 컴퓨터 산업으로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 산업이나 방송통신 산업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술의 경우에서도 과거에는 저술자가 모든 내용을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저술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이를 도와주는 직종도 새롭게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진화나 매체의 융합 등에 의한 신기술의 도입이나, 스토리텔링 같은 산업 범위의 확대 등에 따른 현상들에 대한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 결론

출판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문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그 핵심에 책이 있다. 인간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매체로서 책은 인류가 보전해야 할 정보가 담겨 있는 의미 있는 매체이다. 이러한 매체를 생성해 내는 인력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인재의 양성은 국가의 모든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은 단지 산업의 유지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가치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이 있는 출판학과의 설립을 대학의 당국자들에게 호소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대학은 이미 너무 깊은 생존의 경쟁 속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 이에 대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교육기관에 출판관련 학과가 설치된다면 출판을 위주로 하는 문화와 산업에 최소한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